[신화시평]

중국—중앙아시아 협력, 큰 잠재력에 밝은 전망

2023년 5월 12일, 까자흐스딴 알마티 린근에서 화물렬차가 알마티와 중국 호르고스 사이를 달리고 있다. (무인기 사진) / 신화넷

습근평 국가주석이 2일—6일 까자흐스딴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상해협력기구 성원국 정상 리사회 제24차 회의에 참석하고 까자흐스딴 대통령 토카예프, 따쥐끼스딴 대통령 라흐몬의 초청에 응해 량국을 국빈방문한다. 이번 방문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 정상들은 다시 한번 긴밀하게 상호 움직이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고저 하는 확고한 의지와 선린우호관계를 계속 심화하려는 결심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30여년간 중국과 중앙아시아국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신뢰를 중시하고 친선을 도모하며 선린우호, 협력상생의 새로운 길에 나서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의 본보기가 됐다.

30여년간 불안하고 복잡한 국제정세에 맞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동반자들과 시종일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해왔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현했으며 인류운명공동체의 전면화를 실천했다.

2023년 5월,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돼 중국—중앙아시아 기제의 기틀이 마련되고 전면적인 구도가 갖춰졌다. 량측은 함께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상호 핵심 리익에 관한 문제에서는 서로를 확고하게 지지하며 서로의 정당한 권익과 전략적 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질서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30여년간 량측은 상호 리익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왔다. 최근 수년간 중국—중앙아시아국가는 상호 보완의 우세를 발휘하고 전략적 접목을 심화해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중국—중앙아시아국가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은 이제 국제사회의 선두에 서있다.

30여년간 량측은 동고동락하고 안위를 함께 책임져 공동의 안보 리익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유력하게 지켜냈다. 각국에 공동·종합·협력·지속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자고 제창한 중국의 목소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았으며 협력에서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테로주의·분렬주의·극단주의의 '세가지 세력'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밀매에 대한 공동 단속부터 외부 간섭과 '색갈혁명'의 책동을 단호하게 반대하기까지 중국—중앙아시아국가의 안보 협력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량자 및 다자 안보 협력의 기제에 힘입어 중국—중앙아시아국가는 함께 글로벌 안보 창의를 실천하고 지역 분쟁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여년간 량측 인문교류의 다양한 성과가 잇달아 나타나 세대 우호적 민의의 토대를 굳건히 다졌다. 평등·상호학습·대화·포용의 문명관을 견지한 중국—중앙아시아국가간 인문 협력은 민심상통의 중요한 교량과 련결고리가 됐다. '로반공방'은 현지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인재를 제공했으며 중국—까자흐스딴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의 정식 발효는 량국 인적 왕래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단계별로 인문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량측 민중은 더 가까워지고 리해가 깊어질 것이며 이는 중국—중앙아시아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이자 좋은 형제이다. 중국—중앙아시아국가의 선린우호, 상호 협력의 새로운 '황금 30년'이 이미 시작됐다. 향후 중국—중앙아시아국가의 협력은 매우 큰 잠재력과 밝은 전망을 드러낼 것이다.

/ 신화넷

《평'어'근인—습근평이 좋아하는 고전》 까자흐스딴서 방송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상해협력기구 성원국 정상 리사회 제24차 회의 참석 차 까자흐스딴을 국빈방문할 즈음에 중국 중앙방송총국이 제작한 《평'어'근인(平"语"近人)—습근평이 좋아하는 고전》 시즌3(第三季)(까자흐어판)이 7월 2일부터 까자흐스딴에서 전파를 탔다. 현지 여러 주류 언론들이 프로그람 예고편을 내보내 까자흐스딴 각계인사들의 기대와 폭넓은 주목을 받았다.

《평'어'근인—습근평이 좋아하는 고전》 시즌3(까자흐어판)은 공동부유, 생태보호, 문화전승, 문명다양성 등 주제에 관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문장, 담화에서 인용한 중국 고전과 명언 문구를 소개하는 프로그람이다.

7월 2일, 까자흐스딴 정부기관보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까자흐스딴진리보》(로어판), 《주권까자흐스딴보》는 모두 1면에 이 프로그람이 까자흐스딴에서 방송된한다는 소식을 게재했다.

《평'어'근인—습근평이 좋아하는 고전》 시즌3(까자흐어판)은 7월 2일부터 까자흐스딴 대통령 방송총국 산하의 실크로드방송국, 아타메켄방송국 등 주류 매체에서 방송되기 시작했다. 까자흐스딴 각계인사들은 이 프로그람은 현지 국민들이 중국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더욱 잘 느끼고 중국 지도자의 국정운영 사상을 리해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며 보편적으로 기대를 보였다.

/ 국제방송

[뉴스배경] 까자흐스딴

까자흐스딴은 아시아 중부에 위치, 면적이 272만 4,900평방키로메터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내륙국가이다.

까자흐스딴은 다민족국가이며 2024년 3월 현재 까자흐스딴의 총인구는 2,003만명이다.

올해는 중국과 까자흐스딴 수교 32주년이 되는 해이다. 수교 30여년래 량국 관계는 도약식의 발전을 이룩하여 영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사진은 2일 까자흐스딴 수도 아스타나의 거리에 휘날리는 습근평 주석 환영 기발. / 신화넷

우리 서로 알고 친해지자!

중국—까자흐스딴 인문교류행사 개최

6월 24일, 까자흐스딴 아스타나에서 고객이 중국 브랜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 신화넷

중국 중앙방송총국은 2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상해협력기구 성원국 정상 리사회 제24차 회의 참석과 까자흐스딴 국빈방문을 앞두고 "'산과 물이 잇닿은 이웃, 새 장을 열다' 신편" 중국—까자흐스딴 인문교류행사를 아스타나에서 개최했다. 까자흐스딴 대통령 토카예프는 이에 서한을 보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미리 축하했다. 까자흐스딴 정치·경제계 대표, 언론·학계 저명 인사 100여명이 행사에 참석해 관련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과 중국—까자흐스딴 합작 다큐멘터리 《공동의 꿈》 방송 개시를 지켜봤다.

토카예프는 축하 서한에서 이번 행사는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까자흐스딴 방문 기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는 인문교류는 량국 국민을 이어주는 뉴대라고 강조하면서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량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한 까자흐스딴—중국 문화중심은 량국간 협력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중앙선전부 부부장이며 중앙방송총국 총국장인 신해웅(慎海雄)은 축사에서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까자흐스딴을 국빈방문하는 기간 아스타나에서 인문교류행사를 마련했다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보내준 축하 서한은 량국 정상의 지도 아래 중국과 까자흐스딴 국민간의 세세대대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까자흐스딴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공동의 꿈》 방송 개시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량국 국민간의 상호 리해와 친밀감을 더욱 증진하고 마음의 교류를 깊게 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공동 구축을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까자흐스딴 관광체육부 부부장 예르킨바예프는 축사에서 2023년 중국—까자흐스딴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량국 관광객 왕래가 더욱 편리해졌다며 중국—까자흐스딴 관광 협력은 거대한 잠재력과 넓은 전망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타나국제금융중심 총재 무함베트자노프는 축사에서 인문교류는 까자흐스딴과 중국 국민의 마음을 련결하는 가교이자 뉴대라면서 이는 량국의 우호 관계와 금융 협력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타나국제금융중심은 유라시아지역의 중요한 금융중심지이며 '일대일로' 창의를 실행하는 금융 플래트홈이라고 말했다.

까자흐스딴 주재 중국대사 장소는 중국과 까자흐스딴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문교류의 력사도 깊다며 고대 실크로드로 동서양을 련결하는 장대한 서사시를 함께 써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인문교류는 중국—까자흐스딴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끊임없는 발전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의 꿈》 이 프로그람은 중국—까자흐스딴 량국의 인문, 예술, 생태, 경제 및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동건설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대에 협력과 상생, 운명을 함께하는 발전 이야기와 세대를 이어온 감동적인 우정을 그리고 있다. 이는 중앙방송총국과 까자흐스딴이 해당 분야에서 최초로 진행한 최대 규모의 촬영 협력이다.

한편 '중국—까자흐스딴 경제 정보직통차' 프로젝트가 이날 가동되였다. 이 프로젝트는 중앙방송총국과 아스타나국제금융중심이 협력량해비망록을 체결한 이후 거둔 첫번째 실질적 협력 성과로 량국간 경제 분야의 심층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통합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국제방송

전세계 응답자의 92.7%: '상해정신'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범

세계의 이목이 다시 상해협력기구에 쏠리고 있다.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협력기구의 국가 정상들이 까자흐스딴에 모여 지역 안보와 발전 문제를 론의하기 때문이다.

중앙방송총국 국제텔레비죤방송국이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 대부분이 20여년의 발전을 통해 상해협력기구는 지역 안보 장벽, 협력 가교, 우호 뉴대 및 건설적인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했다고 답했으며 82.8%의 응답자가 상해협력기구가 '세계 남방' 국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촉진하기를 기대했다.

안보 협력은 설립 초기부터 상해협력기구의 핵심 협력 분야였다. 테로주의, 분렬주의, 극단주의의 '세가지 세력'을 단속하고 전략적 안보를 확보하며 국방사무 안전을 유지하고 마약 금지와 자금세탁 방지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단속하는 등 상해협력기구가 지역 안보 장벽으로 발전했다고 응답자들은 보편적으로 지적했다. 이중 응답자의 89.6%가 상해협력기구의 지역 및 국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고 83.7%가 상해협력기구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안보는 발전의 기초이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인 중국이 제창한 글로벌 안보 창의는 상해협력기구의 안보관과 매우 일치한바 전세계 응답자들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중 응답자의 91.2%가 국가간 갈등과 분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방적 제재와 '롱암관할'(长臂管辖) 람용을 반대했으며 랭전적 사고는 글로벌 평화의 틀을 파괴할 뿐이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는 세계 평화를 해칠 뿐이며 집단 대결은 안보 도전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응답자가 94.8%에 달했다.

상해협력기구는 유라시아와 글로벌 관리의 건설적인 힘이다. 상해협력기구는 항상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 존중 및 공동 발전 도모'의 '상해정신'을 고수하면서 동맹없이 성원국들이 협력하고 대결이 아닌 대화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발전의 길을 열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7%가 '상해정신'의 리념에 높은 공감을 표하면서 '상해정신'은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촉진하는 모델이라고 답했으며 83.9%가 상해협력기구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상해협력기구의 기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대일로' 창의를 포함한 많은 국제 공공재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한편 82.8%의 응답자는 상해협력기구가 글로벌 관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하여 '세계 남방'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촉진하기를 기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제텔레비죤방송국 영어, 에스빠냐어, 프랑스어, 아랍어 및 로어 플래트홈에 게시되였으며 24시간 동안 1만 3,527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하여 견해를 밝혔다.

/ 국제방송